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 가르쳐 주세요

(제17 마지막회)

■ 鄭 東 哲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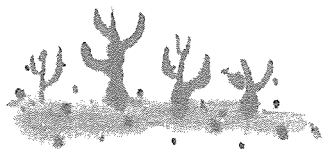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 의사인 鄭東哲박사가 계속 집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면됩니다.



## 어 린 이 미 텡



겨울 방학.

미아는 불안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 했다. 행여나 하고 들뜨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속상한 마음을 일기애다 낙서하듯 그리면서 자신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

「아빠는 왜 그럴까. 아빠는 정말 알수가 없다. 그렇게도 많은 날들을 술로서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다간 어머니를 울리실 때가 한 두번인가.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망년회는 안된다고 하시는건가. 어머니께서 믿을 만한 친구집에서 졸업반 친구들끼리 조그만 파티를 한다고 설득하셨지만 끝내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면서 편잔만 하고 싸움이 되고 말았다.

애미라고 집에서 생각하는 소견머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미를 닮아 벌써부터 싸수가 나쁘다는 것이었다. 감히 여자아이가 그것도 국민학교 졸업반 밖에 안된 것이 무슨 미팅이냐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어떤 부모님들이기에 허락을 받았을까. 아빠는 너무 밋다.」

미아의 아버지가 반대한 것은 특히 남 녀가 함께 파티를 한다는데 화가 났다.

도대체 세상이 어찌될려고 어린 아이들까지 무슨 파티다, 미팅이다 하느냐는 것이었다.

졸업반이라면 13살 전후. 알듯 말듯 미묘한 나이에 사내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뒤틀을 하겠느냐는 것이 아버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런 파티를 허락한 부모에게 전화라도 걸어 한바탕 퍼붓고 싶었지만 그것만은 참기로 했음이 다행이었다. 조순하게 책이나 보고 집안일을 거들일이지 시덥지 않게 무슨 놈의 크리스마스다 망년회다 하는 것이냐고 비위가 상해버린 것이다.

미아는 외톨이가 되었다. 이제 친구도 다 잃어버린 외로운 사슴이 되고 만기분이었다. 슬펐다. 쓸쓸했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어른 아이, 남자와 여자, 좌우간 사람들이 온통 들떠 술렁거리는 가운데 어린이 미팅이란 문제가 생기고 보니 부모의 마음은 착잡하다. 옹고 그름에 앞서 찬반속에 눈치만 보다 일그러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할 지 그것이 급해졌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태도일까.

우선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해답을 찾아보는 순리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파티, 어린이들의 혼성 미팅, 말하자면 이 두가지 의미가 갈등의 초점이 될 것이다. 어린이라는 시제와 계절적인 파티의 관계, 그리고 어린이의

혼성유희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먼저 파티에 대한 어른들의 연상이 어떤 것일까.

「조그만 것들이 벌써부터 무슨 파티」라는 것이 떠올려지는 첫 인상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연말의 들뜬 분위기는 마땅히 어른이나 청년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생각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40대 전후의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일찌기 어린시절에 들어온 상투어가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파티도 파티 나름이다. 파티라는 용어가 갖는 어의가 실은 문제임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잠시 십년 전의 시골로 가 보자. 겨울의 긴긴 밤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일까. 안방에선 아버지 친구들이 도토리묵 내기 화투를 친다. 건너방에서는 아낙들이 화로불가에 앉아 연신 안방의 시중을 들면서도 애기의 꼴이 저물지가 않는다.

사랑방에선 장정들이, 그리고 또다른 뜨락방이나 아니면 마실로 비워진 옆집 안방에서 조무라기들이 모여 떠들고 노래하며 이런저런 옛날 애기에 왈작지껄한다. 시체말로 하면 곧 어린이 파티다.

방방이 따지고 보면 온통 파티의 연속이며 그래서 호롱불의 긴긴 겨울밤은 천정이 시커멓게 스글리고도 따끈한 아랫목의 인정이 좀 해서 식지를 않는다.

그때 그들 부모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 했을까. 10대들이 손목이 빨갛게 부푸는 때리기 파티를 한다해서 남녀 7세

부동석으로 과연 성벽을 쌓고 있었을까?

할아버지에서 어린이까지 자연스런 파티가 조금도 이상할 것 없이 방마다 웃음 속에 환히 밝았었다. 우리는 지금 어찌서 어린이가 파티를 염려하게 되었을까?

남녀간의 어린이가 단체 미팅이 부모의 저항감을 일으키는 것은 확실히 그 단어의 나열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미 우리들의 과거는 그 정도로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다.

사실 그 시절의 자연스런 어린이들의 말동산은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감시할 것도 당할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할머니의 존재가 전연 부자연스럽지 않게 공존하고 있었던 탓도 이유이긴 했지만 하여간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초현대적이라는 80년대의 부모가 「미아로 하여금 마음의 미아를」 만들려고 하는 이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파티», 「미팅», 「남녀」라는 용어에 오염된 어른들의 의식이 문제임을 말해 준다.

파티라면 미아의 아버지는 흥청거리며 술을 마시고 뭔가 사치스런 것으로 체험되어 있다. 미팅이라면 대학생 정도가 되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나이에(잘못된 판단이지만) 배우자 선택의 무슨 남시터썸으로 익혀졌으며, 남녀하면 곧 포옹이나 하고 서양 영화에 나타나는 침대의 유희가 연상되고 있다.

스스로 퇴폐적 분위기에 체형적으로 오염된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다. 요컨대 파티, 미팅, 남녀 등은 다분히 성인영화 정도로 이해되어 있다는 뜻이

다.

파티와 미팅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옛  
돌지 설달의 겨울밤들은 지금에 비해 한  
결 자연스럽게 격의없는 인간교제의 방  
과 방 속에 마음과 마음들이 오가며 그  
래서 비록 집들은 흩어져 있어도 한결같  
이 너와 나의 경계가 「우리」란 단어 속  
에 흥건히 녹아 있었다.

벽 하나 사이로 같은 건물 속에 밤낮  
을 같이 사는 현대인의 아파트는 「우리」  
란 단어에서 너와 나의 경계를 뚜렷하게  
할 정도를 지나쳐 이제 경계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린이들의 미팅을 도무지  
편안하게 받아 들일 수가 없어진 것이다.

어떤 결론이 필요하게 되느냐는 것은  
이제 더 깊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 전적  
으로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찬반은 갈리  
게 될 것이며, 옳고 그름이란 흑백 논리  
가 극단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다.

솔직히 언제나 어린이의 파티를 찬성  
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만 할 수  
도 없다. 그것은 경우 경우에 따라 달라  
질 것이며 천편일률적인 결론은 좋을 리  
가 없다.

어린이의 파티가 권장할 만한 때가 됐  
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어  
린이들의 판단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가  
능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탓이  
다. 부족한 판단을 부모가 보조하여 그  
들이 주체가 되어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  
다. 그러나 어려울 것도 없다. 부모 자  
신이 최소한 편견에서 벗어나면 문제는

## 독자만화 ■



보신탄이 없어진 이후 · 유자형

간단하다.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  
모 자신이 올바른 생활태도와 습성을 갖  
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름이야 어떻게 불리는 부모 자신들  
이 건강하다면 편견은 있을 수 없다. 편  
견이 없다면 어린이 미팅에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결론으로 옥박질러지지 않는  
것이다.

미아로 하여금 방황하는 마음을 일기  
속에 미움의 한으로 토해지는 글을 만들  
게 할 아버지는 없게 되리라는 것은 따  
라서 자명해진다. 이것은 어린이 파티에  
참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정될 수 있는  
것임은 거의 자명하다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